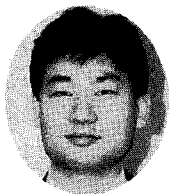


# 환경문제 접근은 재미있는 책 읽기에서부터

## —기자가 추천하는 세권의 환경입문서—



高鍾元

(조선일보 수도권부 기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환경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전문용어들이 난무하여 마치 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으려는 소박한 마음을 꺾어놓기 일쑤다. 그런 뜻에서 환경문제에 흥미를 갖도록 해 주는 책 세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로빈 쿡이 쓴 소설 「열병」, 로빈 쿡하면 국내에도 많은 독자를 확보한 의학 스릴러물의 대가이다. 「의뢰인」 등 법률소설분야를 개척한 존 그리섬에 비견되는 그는 「코마(혼수상태)」 「돌연변이」 등 여러가지 소설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얼마전 발생한 낙동강물 오염사건을 연상해 보면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의사가 딸이 왜 백혈병에 걸렸는가를 추적하다 근처 제지공장에서 불법방출한 벤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관료주의 때문에 벤젠이 누출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관료들과 벤젠누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인공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회사들의 형태가 사실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더구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오염물질이 지난번 낙동강오염사고때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벤젠이라서 더 흥미를 돋군다.

또 한편의 책은 “바이러스 임진왜란”이라는 책이다. 컴퓨터통신에서 연재된 뒤 책으로 나온 이 책은 필자도 저자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명작가가 쓴 글이다. 다만 그가 컴퓨터통신계에서는 공상과학소설의 저자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극우파가 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는 정보를 접하고 기존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든 각종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나라를 침해한다. 이때 이용한 것이 가루가 많은 나비의 유전자와 철(鐵)성분을 갇아먹는 개미의 유전자이다. 특히 기존 나비유전자를 변형해서 새로 만든 나비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갖는 특성에만 반응하도록 해 한국인을 죽이는데 사용된다. 이 나비가루에 묻은 바이러스의 이름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이름을 딴 히데요시 바이러스이다. 이 소설

의 결말은 한국 정보부의 활약과 컴퓨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청년 한명의 활약으로 일본을 제압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소설은 한편으로 보면 생물의 다양성 즉 유전자를 다량으로 보유한 나라가 미래사회에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생물들이 치명적인 무기로 까지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생물다양성협약가입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전자공학 및 생물학 관련자들이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의회도 구성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토종을 살리자」라는 주제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이는 뒤늦게나마 생물종의 중요성에 눈을 뜬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할만하다.

소설과 예언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책으로 일본의 예언가 후쿠나카 호젠이 지은 책 「지구 46억년의 역습」이 있다. 20대때 전기회사를 다니다 사직을 하고 예언가로 돌아선, 올해 마흔 아홉의 후쿠나카는 현재 상태로라면 지구는 2001년 1월 6일 멸망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신비적인 지구종말론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럴듯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의 예언은 국내에도 소개된 G.E 러브록의 가이아이론(理論) 즉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이론과 흡사하다. 46억년동안 생명을 유지해온 지구는 인간이라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생물다양성협약가입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전자공학 및 생물학 관련자들이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의회도 구성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토종을 살리자」라는 주제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는 암세포가 커짐으로 인해 이를 없애기위해 엄청난 기후 지각 대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구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인간은 가장 큰 피부병」이라고 하는 독일

의 철학자 니체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다. 그는 나라별로 어떤과정을 통해 파멸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아프리카의 경우 사막화, 브라질은 삼림남벌 등이며 이런과정에서 지구가 몸부림치면서 지각변동과 지반침하, 오존층파괴로 인한 기형아의 발생과 화산폭발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후쿠나카 호젠이라는 사람이 환경문제 전문가라기 보다는 종교가 성격이 짙으며 이런 사건들을 순전히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기한 점이다. 어쨌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때론 어렵지만해보이는 환경문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쉽고 재미있는 분야부터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얘기도 있다. ◀